

학교운동부 선수의 학습권보장제 진단과 발전과제

이양구, 홍희정
서원대학교

Diagnosis of the Guarantee System of Right for Learning for Student Athletes in School Athletic Clubs and Development Strategy

Yang-Gu Lee, Hee-Jung Hong
Seowon University Dept. of Physical Education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체육 현장 속에서 운동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본 제도가 적용하고 있는 상대적 최저학력 기준을 토대로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력 수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 시대적 흐름과 융복합적 변화에 맞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종목별 최저학력 기준 적용과목 간 학업성적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one-way ANOVA와 MANOVA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적 평균 점수는 대부분 일반학생들이 나타내는 학업성적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일반학생들과의 상대적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학업성적이 높아질 때마다 학생 운동선수들은 최저학력 기준에 미도달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셋째,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 간의 학업성적 평균 점수에 현 최저학력 기준을 단계적으로 적용시켜도 최저학력에 도달하는 비율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학교운동부, 학생선수, 학습권, 융복합, 최저학력제

Abstract Based on the operating system of the advanced school athletic clubs operated to attempt a new paradigm of athletic culture in the field of school athletics, this study aimed to conduct an in-depth analysis of the student athletes' academic level and seek a solution for the stream of the times and integrated change based on a relative minimum academic achievement standard applied by this system. For Analyzing the difference in academic grades between subjects to which the minimum academic achievement standard by the event is applied, one-way ANOVA and MANOVA were used. First, the grade point average (GPA) of the student athletes by the event did not reach the GPA of most general students. Second, it was predicted that in applying a standard, relative to the general students, as academic grades increased, the probability in which the student athletes do not reach the minimum academic achievement standard would increase. Third, it turned out that, even in the phased application of the current minimum academic achievement standard to the GPA of the student athletes by the event, the ratio of the attainment of the minimum academic achievement was similar.

Key Words : School athletic, Student athletes, Right for learning, Convergences, Minimum Academic Achievement

Received 2 January 2017, Revised 1 February 2017
Accepted 20 February 2017, Published 28 February 2017
Corresponding Author: Hee-Jung Hong(Seowon University)
Email: hjhj1019@empas.com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우리나라의 학원스포츠는 성적지상주의의 만연으로 인해 과도한 훈련이나 체벌 등이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묵인되고 있으며 이들 운동선수들은 학생의 신분이 아닌 선수의 신분으로서 역할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운동선수 자신과 그들의 부모, 운동부 담당 교사, 지도자(감독, 코치)들은 학업에 중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운동선수 자신이 개인의 더 큰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어느 정도 학업을 포기해야 했으며, 운동기능 부족 및 부상으로 인해 운동을 그만두면 정상적인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수반되어질 것을 알기에 자연스럽게 운동에만 매진하는 풍토가 자리 잡혔다[1].

특히, 지난 수십 년간 운동선수들은 학업을 중요시하지 않아도 자신이 원하는 상급학교에 무난히 진학 할 수 있는 ‘체육특기자제도’를 통해 단순히 학업에 소질이나 흥미가 없어서 차선책으로 운동을 선택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았다[2].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체육특기자제도’는 학생선수들에게 자신의 운동특기를 중심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을 위한 경쟁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고는 있지만 경기실적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운동선수들로 하여금 학업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어렵다[3,4,5,6].

이와 같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에서는 학교체육의 정상화를 이끌기 위해 2003년 3월에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시작으로 2010년 9월에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등의 종합계획적인 성격의 정책들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다수의 학교체육 정책들은 장기적인 기본계획에 의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었다기보다는 사회적인 문제가 이슈화되었을 때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대부분이었기에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나타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학교체육진흥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학교체육의 진흥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학교체육진흥법안’(대한민국 국회, 2011.3.14)의 제명으로 운동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법안(시행령 대통령령 제24347호, 시행규칙 교육부령 제1호)을 발의

하였다[7].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계획[8]은 2010년 시범 운영 후 2011년부터 초·중·고등학교로 단계적 확대 시행되고 있으며, 2017년에 마지막 운영단계인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적용시켜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한 운동선수에 대해 대회참가의 기회를 제한하고 학력증진프로그램 참여를 의무화시켜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제도적 장치로 운영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은 학교운동부가 엘리트체육의 기반이 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운영 주체 및 방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두 나라 모두 관련 규정을 부분 혹은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정부분 그 현실적용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이 제도가 제정되고 운영되는 현 시점에서 제도 불완전성을 비판하는 의견이 아직까지도 존재하고 있으며, 제도의 시행 방향과 세부적인 내용을 탄력적으로 변화하려는 정부의 시도 역시 미약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본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 학습권 보장임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본질상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 자체보다는 결과로서의 성적(5과목: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만을 기준(초등학생 50%, 중학생 40%, 고등학생 30%)으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에 최저학력 기준은 일반학생들과의 상대적 평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학교간, 종목간, 지역간 편차를 반영하지 못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던 부분이기도하다.

이러한 성적기준의 상대성은 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볼 때 근본적인 문제의 소지가 존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NFHS와 NCAA 모두 성적기준을 평균 2.0이상을 명기하고 있으나, 미국 학교의 성적평가 관행상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절대적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사가 판단하는 일정 수준의 학습능력을 도출하면 기본적인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9].

또한 일본의 경우 역시 학교 자체의 내규에 의해 일정 점수에 도달하지 못한 운동부원의 경우 보충학습반으로 편성되어 운동부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대다수 이는 절대적 점수기준에 의한 평정에 근거하여 평가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제도적 평가 기준과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행과 같은 일반 학생의 성적을 기준으로 상대 평가를 지향하는 현행 제도는 운동선수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에서 벗어나는 교육적 행위라고도 볼 수 있기에 결과중심의 학습권 보장의 제도가 아닌 과정 중심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제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 기준에 따른 운동선수의 학업성적을 분석하여 진단하고 현 시대적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맞게 진화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 을 두었다.

2. 연구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 선정한 중학교 학생들은 실제 학교 현장의 운동부에서 선수등록을 마치고 활동 중인 학생들이며,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며 공부하는 학생선수를 만들기 위 한 정부정책 시행과정 속에서 최저학력 기준 적용과목 간 학업성적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자료 수집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은 호서지방에 위치한 중 학교 운동선수 240명을 무선표집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아래의 <Table 1>과 같이 나타 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tudy

	factor	persons	frequency(%)	
grade	first	70	29.2	
	second	84	35.0	
	third	86	35.8	
sports	kendo	18	7.5	
	rugby	18	7.5	
	wrestling	18	7.5	
	swimming	18	7.5	
	ssireum	18	7.5	
	judo	18	7.5	
	athletics	24	10.0	
	taekwondo	36	15.0	
	hockey	36	15.0	
	handball	36	15.0	
	minimum standards	first	reach	68
non-reached			2	2.9
second		reach	72	85.7
		non-reached	12	14.3
third		reach	64	74.4
		non-reached	22	25.6
	sum	240	100.0	

2.2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는 학생 운동선수의 학력저하 및 학습권 침해로 사회적 우려 심화에 대해 학생 운동선수 학습권 보장제가 운영되고 있는 중학교 현장의 운동선수들의 학 력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학교 현장의 교사 및 운동부 지도자의 협조를 통해 수집된 2014년도 성적(국 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현황 자료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2.3 자료처리 방법

자료 분석을 위한 통계처리는 SPSS 21.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중학교 운동선수의 종목별 운동선수 간 최 저학력 기준을 적용하고 종목별 운동선수의 학업성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 을 실시한 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경우 Scheffe test를 사용하여 사후검정 하였다. 종목별 최저학력 기준 적용 과목 간 학업성적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 분석(MANOVA)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을 .05 로 설정하였다.

3. 연구결과

3.1 운동종목별 최저학력 기준 도달여부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학습권을 보장하는 제도에서 설정한 최저학력 기준을 통해 종목별 학생선수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최저학력 기준의 타당성을 점검하고자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의 학업성취도를 분석 한 결과 중학교 1학년의 경우 수영(79.80점), 2학년은 럭 비(68.13점), 3학년은 검도(59.40점) 종목의 학생선수 학 업성취도 평균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반면, 학생선수 학업성취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종목 의 경우 1학년은 하키(33.52점), 2학년은 씨름(28.33점), 3 학년 역시 씨름(23.33점) 종목인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본 제도가 지니고 있는 최저학력 기준의 가장 큰 문제 점은 일반학생들과의 상대적 성적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학생 운동선수들은 일반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항상 수준 에 따라 최저학력에 도달하거나 또는 미도달 될 수 있는 변동에 폭이 크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Table 2> apply analysis the lowest performance criteria between the event another player

factor	first grade			second grade			third grade		
	N	M	SD	N	M	SD	N	M	SD
A	6	52.80	4.30	6	58.47	12.52	6	59.40	5.76
B	6	66.80	6.57	6	68.13	4.53	6	53.97	22.69
C	6	62.80	16.30	6	60.47	16.48	6	32.07	5.84
D	6	79.80	1.76	6	35.07	8.80	6	42.53	8.22
E	6	35.60	2.84	6	28.33	1.89	6	23.33	2.59
F	6	44.87	5.02	6	30.20	3.34	6	31.93	1.08
G	8	38.10	5.24	6	49.13	11.21	10	31.84	15.93
H	2	43.20	0.00	18	40.20	12.90	16	36.50	6.83
I	12	33.52	9.04	12	32.27	7.30	12	32.22	6.37
J	12	49.50	12.92	12	36.28	10.34	12	32.53	8.12
F	19.51***			12.35***			8.06***		
post-hoc	A ≤ B ≥ C < D > E, F, G, H, I ≤ J			A ≤ B ≥ C ≥ D, E, F ≤ G ≥ H, I, J			A, B > C ≤ D ≥ E, F, G ≤ H ≤ I, J		
elementary school minimum standards 50%	fail : I			fail : E, I			fail : C, E, F, G, I, J		
middle school minimum standards 40%	fail : nothing			fail : nothing			fail : E		
high school minimum standards 30%	fail : nothing			fail : nothing			fail : nothing		

* A(kendo), B(rugby), C(wrestling), D(swimming), E(ssireum), F(judo), G(athletics), H(taekwondo), I(hockey), J(handball)

호서지방의 학생 운동선수들은 중학교 3학년에서 미 도달 된 종목이 발생되기는 하였지만 위와 같은 결과에서 보이듯이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낮은 현실 속에서 본 제도가 제시한 최저학력 기준을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함에 있어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의 학업성취도 수준을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음이 확인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본 제도에서 제시한 최저학력 기준 역시도 지금의 연구와 같이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한 것임에는 반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본 제도가 지닌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일반학생을 적용 대상으로 선정함에 있기에 이들 대상자를 학생

운동선수들 간의 기준으로 변경하여 근본적 문제의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2 운동종목별 학업성적 적용과목 분석

3.2.1 중학교 1학년 학업성적 적용과목 간 차이

본 제도가 제시한 적용과목인 국민공통교육과정(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한 중학교 1학년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취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제도의 적용과목에 대한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럭비, 레슬링, 수영 종목의 학생 운동선수들이 모든 과목에서 집단의 평균보다 높은 학업성

<Table 3>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ddle school first year of results applicable subjects

factor	N	language		society		mathematics		science		english	
		M	SD	M	SD	M	SD	M	SD	M	SD
A	6	83.00	8.53	52.33	11.25	40.00	1.79	38.67	5.82	35.67	9.56
B	6	68.73	10.06	72.23	8.74	67.17	14.20	70.37	3.94	55.50	20.22
C	6	62.00	12.90	60.33	16.50	50.00	21.85	68.67	9.48	73.00	21.71
D	6	76.33	1.86	84.00	13.36	68.67	7.45	92.67	7.61	77.33	1.03
E	6	50.00	5.58	29.33	3.14	17.67	4.50	48.00	5.58	33.00	4.10
F	6	46.00	3.90	41.00	6.26	28.33	9.56	59.00	21.76	50.00	4.47
G	8	52.00	9.62	28.00	0.00	25.50	1.60	51.50	0.53	33.50	15.50
H	2	59.00	0.00	34.00	0.00	34.00	0.00	51.00	0.00	38.00	0.00
I	12	43.00	18.38	34.67	13.88	23.67	9.55	38.50	21.78	33.50	14.39
J	12	52.72	10.19	61.17	15.23	37.20	18.11	48.93	14.81	47.55	14.70
sum	70	57.13	16.39	49.68	21.02	37.62	19.89	54.68	20.15	46.62	19.85

* A(kendo), B(rugby), C(wrestling), D(swimming), E(ssireum), F(judo), G(athletics), H(taekwondo), I(hockey), J(handball)

<Table 4> events standings manova of variance of the result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Wilks' Lambda	univariate F	df	p-value	η^2
sports	language	.02 (p=.000)	9.90	9/70	.000	.01
	society		18.18	9/70	.001	.00
	mathematics		13.83	9/70	.000	.00
	science		10.09	9/70	.000	.00
	english		9.26	9/70	.000	.00

취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씨름, 육상, 하키 종목의 학생 운동선수들은 모든 과목에서 집단의 평균보다 낮은 학업성취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제도의 적용과목별 중학교 1학년 학생 운동선수들의 종목 간 학업성취도 점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Wilks의 람다는 .02, 유의확률은 .000으로 학생 운동선수들의 종목 간 학업성취도 점수별 집단 특성에 따라 본 제도의 적용과목 모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중학교 2학년 학업성적 적용과목 간 차이

중학교 2학년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취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제도의 적용과목에 대한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럭비, 레슬링 종목의 학생 운동선수들이 모든 과목에서 집단의 평균보다 높은 학업성취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수영, 씨름, 유도 종목의 학생 운동선수들은 모든 과목에서 집단의 평균보다 낮은 학업성취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제도의 적용과목별 중학교 2학년 학생 운동선수들의 종목 간 학업성취도 점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Wilks의 람다는 .06, 유의확률은 .000으로 학생 운동선수들의 종목 간 학업성취도 점수별 집단 특성에 따라 본 제도의 적용과목 모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ddle school second year of results applicable subjects

factor	N	language		society		mathematics		science		english	
		M	SD	M	SD	M	SD	M	SD	M	SD
A	6	65.33	6.28	48.33	22.49	48.67	7.61	60.67	9.89	37.33	12.56
B	6	69.30	5.12	63.50	19.29	59.97	6.92	73.47	3.44	74.50	4.66
C	6	57.33	15.40	71.33	15.63	57.67	21.10	53.67	20.40	62.33	14.26
D	6	43.33	15.21	39.67	11.88	26.00	3.22	33.33	14.26	33.00	7.32
E	6	33.67	12.18	20.67	2.73	21.00	2.37	40.00	0.89	26.33	0.52
F	6	26.33	3.61	25.00	3.90	35.67	2.25	33.00	4.73	31.00	7.32
G	6	67.33	1.86	52.00	18.61	35.00	19.37	48.00	9.67	43.33	15.40
H	18	47.67	12.94	39.22	19.09	34.89	15.09	44.00	10.43	35.22	17.22
I	12	41.17	12.55	31.50	10.01	24.33	6.84	46.67	12.04	23.50	5.35
J	12	35.52	11.80	45.80	22.64	31.05	14.07	35.30	2.96	33.75	8.80
sum	84	47.07	16.80	42.34	20.83	35.67	16.43	45.58	14.56	37.71	17.59

* A(kendo), B(rugby), C(wrestling), D(swimming), E(ssireum), F(judo), G(athletics), H(taekwondo), I(hockey), J(handball)

<Table 6> events standings manova of variance of the result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Wilks' Lambda	univariate F	df	p-value	η^2
sports	language	.06 (p=.000)	11.84	9/84	.000	.08
	society		5.80	9/84	.000	.00
	mathematics		8.10	9/84	.000	.00
	science		10.39	9/84	.000	.00
	english		13.24	9/84	.000	.00

<Table 7> the difference between the middle school third year of results applicable subjects

factor	N	language		society		mathematics		science		english	
		M	SD	M	SD	M	SD	M	SD	M	SD
A	6	59.00	6.45	68.00	3.90	52.33	9.14	78.33	3.72	37.00	8.81
B	6	59.63	14.15	58.60	23.51	41.20	29.41	53.50	17.29	57.03	31.91
C	6	33.00	8.05	33.67	13.03	29.33	5.46	32.67	0.52	31.67	4.23
D	6	50.00	1.79	49.00	14.06	29.33	11.32	48.00	11.21	36.33	5.82
E	6	28.00	8.81	20.00	2.68	13.33	1.37	32.33	3.14	23.00	3.90
F	6	24.33	4.23	24.00	0.89	39.00	3.22	33.33	2.87	39.00	3.90
G	10	42.80	13.05	35.00	18.52	23.80	16.62	27.20	16.80	30.40	19.76
H	16	39.00	11.49	41.50	13.70	27.12	3.63	42.00	7.10	33.50	9.78
I	12	42.67	12.32	30.33	12.50	20.00	8.07	44.67	5.58	26.50	7.99
J	12	36.67	13.27	39.90	12.30	27.17	8.34	32.18	8.62	26.77	5.17
sum	86	41.02	14.18	39.26	17.76	28.66	14.27	41.11	15.56	32.83	14.28

* A(kendo), B(rugby), C(wrestling), D(swimming), E(ssireum), F(judo), G(athletics), H(taekwondo), I(hockey), J(handball)

<Table 8> events standings manova of variance of the results

independent variable	dependent variable	Wilks' Lambda	univariate F	df	p-value	η^2
sports	language	.04 (p=.000)	7.32	9/86	.000	.04
	society		7.72	9/86	.000	.00
	mathematics		6.54	9/86	.000	.00
	science		17.32	9/86	.000	.00
	english		3.92	9/86	.000	.00

3.2.3 중학교 3학년 학업성적 적용과목 간 차이

중학교 3학년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취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다.

본 제도의 적용과목에 대한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검도, 럭비, 수영 종목의 학생 운동선수들이 모든 과목에서 집단의 평균보다 높은 학업성취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씨름 종목의 학생 운동선수들은 모든 과목에서 집단의 평균보다 낮은 학업성취도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제도의 적용과목별 중학교 3학년 학생 운동선수들의 종목 간 학업성취도 점수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다변량분산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의 <Table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Wilks의 람다는 .04, 유의확률은 .000으로 학생 운동선수들의 종목 간 학업성취도 점수별 집단 특성에 따라 본 제도의 적용과목 모두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논의

본 연구는 학교체육 현장 속에서 운동문화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시도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본 제도가 적용하고 있는 상대적 최저학력 기준을 토대로 학생 운동선수들의 기초학력 수준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현 시대적 흐름과 사회의 변화에 맞게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력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제도가 운영된 이후 전국 또는 각 지역별의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학력 수준을 조사한 선행 연구가 충분하지 못한 결과로 인해 이 부분의 논의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먼저 밝히며, 본 연구에서 분석된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적인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먼저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력 수준은 일반학생들의 학력 수준의 평균 점수(1학년: 67.78점, 2학년: 66.76점, 3학년: 65.32점)에도 미치지 못하는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에 있어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본 제도가 운용되고 있는 일반학생들과의 상대적 학력 수준(성적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학생 운동선수들은 유동적일 수 있는 일반학생들의 학력 수준에 따라 당해 성취한 학력 수준 결과를 통해 최저학력에 도달하거나 미도달 될 수 있는 결과의 변동에 폭이 크게 나

타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정리하자면, 지금에 결과에서 보듯이 학생 운동선수의 학력 수준이 일반학생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낮은 현실 속에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을 바탕으로 본 제도가 제시한 최저학력 기준을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적용함에 있어 학생 운동선수의 학력 수준을 종목별로 고려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이 확인된 결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에서 적용시킨 과목(국민공통교육과정: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에 대해 분석 결과 역시도 일반학생들도 어려워하는 교과목을 적용시킴에 있어서 일반학생들과의 상대적 최저학력 기준을 넘어야 하는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력 수준 점수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나타나는 학력 수준 즉, 학업성적 부진의 원인은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의 실제 학습시간을 보장받지 못함에도 있겠지만 이와 다른 현상에서의 원인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 운동선수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일부 인기 있는 운동종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생 운동선수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종목들이 상당수인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운동종목별 수급의 양극화 현상은 운동이 힘들거나 어렵고, 고생스러운 운동 종목을 학생들이 기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권의 경우는 수도권과 달리 운동부에 입문시키는 학생들이 운동 선수로서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학생보다는 학업에 관심과 흥미가 적어서 운동을 선택한 학생들이거나 가정 형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위주로 선발되는 경우로 인해 학업성적이 낮은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엘리트스포츠 체제하에서 학생 운동선수가 운동과 학업을 병행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 지배적이며[6,10], 경기실적만을 인정받고 상급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체육특기자제도의 통로가 마련되어 있는 풍토로 말미암아 학생 운동선수들은 학습자로서 누려야 할 학습권리를 등한시 한 채 학생 신분이 아닌 선수 신분으로서의 삶을 선택해 살아가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일 것이다[11].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성장하는 학생 운동선수들은 학습발달 능력을 결정짓는 시기를 놓쳐버려 같은 또래의

친구들보다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학습결손이 발생할 위험성 높으며, 이후 사회인으로서도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교양과 교육이 결여되어 사회적 부적응 자가 되는 현상들이 끊임없이 되풀이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이 운영된 지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관심 있게 지켜보지 못했던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습권리를 더욱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과 학교 현장, 운동부 지도자, 학부모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보인다.

물론, 학생 운동선수들이 나타내는 학력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도를 통해 학습결손의 요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에서 학력증진 프로그램(방과후 미도달 교과목지도, 대학생 멘토링 학습, 기초학력 프로그램운영, 방과후, 담임교사 보충지도 등)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이를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시·도교육청 역시도 관리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때 그 효과는 더욱 커질 것으로 생각된다 [1,12,13].

이제까지 사회적 호응과 지탄을 동시에 받아온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의 운영과정에서 본 제도의 근본적인 문제로 작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요소들을 새로운 대안적 방안을 통해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에 대안적 방안으로 본 제도의 운영 방침을 변화시키는 것은 시기적으로 늦은 감은 있으나 현 시점에서라도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에서 제시한 최저학력 기준의 근본적 문제의 인식을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운동부를 육성하고 있는 학교와 이들을 지도하는 감독 및 코치는 학생 운동선수의 장래를 우선순위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며 이들이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동기의 부여와 함께 훈련 계획 및 일정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제공해 준다면 학생 운동선수가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노력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1,14,15,16].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최저학력 기준의 재설정 문제와 운동부를 육성하는 학교 및 운동부 지도자의 태도가 이전과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다양한 노력들은 물거품이 될 것이며 본 제도가 의도한 것처럼

럼 성공적인 정책으로 학교 현장에 정착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가올 2017년이면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에서 제시한 본 제도가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되는 마지막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이제 더 이상 비정상적으로 운동에만 몰두하게 만드는 운동부 육성학교의 체질개선이 필요할 때이며, 앞서 제시한 대안적 방안의 적용과 근본적 문제 인식에 개선이 절실히 필요할 것이다.

5. 결론

학생 운동선수의 학습문제와 관련된 개선을 위해 국내의 체육계를 비롯한 사회 각 분야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스포츠 활동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와 방법을 동원하여 엘리트 스포츠의 체질개선을 꾀하기 위한 노력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대안적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전국의 각 지역에 분산되어 있는 학생 운동선수를 대상으로 그들이 나타내는 학력 수준과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심층적인 문제를 종합적으로 탐구한 연구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정책의 안정된 정착을 위해서라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연구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호서지방에 위치한 중학교 운동선수 240명을 대상으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에서 제시한 본 제도의 마지막 운영 과정(2017년 고등학교 3학년 시행) 전의 과도기적 상황에서 종목별로 구분한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취능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일반학생들과의 학업성취 차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최저학력 기준의 위험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었으며, 본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의해 수집된 자료와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취도 평균 점수는 대부분 일반학생들이 나타내는 평균 점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에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에서 제시한 일반학생들과의 상대적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적용과목별 일반학생의 학업성취도 수준이 증가할 때마다 학생 운동선수들은 최저

학력 기준에 미도달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것이 쉽게 예측되었다.

앞선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 간의 학업성취도 평균 점수에서 최저학력 기준을 현 초·중·고등학교까지 단계적으로 적용시켜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한 결과, 학생 운동선수들 간 학업성취도는 비슷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어졌다.

이렇듯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에서 제시한 본 제도의 최저학력 기준을 일반학생의 상대적 기준으로 맞춰져 발생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음에 전국의 종목별 학생 운동선수들의 학업성취도 점수를 통한 현 최저학력 기준의 적절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하고 현 최저학력 기준의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적 제도의 개선이 중요할 것이다.

지금에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은 마지막 적용 대상자인 고등학교 3학년까지 운영될 시점에 놓여있는 현 시점에서도 학생 운동선수들은 학습권리를 보장받고 정규수업에 참여하고는 있지만 모든 학생 운동선수들이 수업에서 전달받은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본 제도가 지닌 근본적인 문제의 인식 개선이 가장 필요할 때이다. 이러한 개선의 노력과 동시에 정규수업 참여가 형식적이 아닌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학생 운동선수들의 수준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학습프로그램이 제공될 때 학생 운동선수들은 학습참여에 의미를 찾을 수 있고 더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체육계열 각 부처에서는 학생 운동선수들에게 학습권리 이외의 더 많은 기회 제공과 지원을 마련하여준다면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의 더 큰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S

- [1] Yang-Gu Lee, "Research on the Result of School Athletic Team Advancement Policy in School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Act",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3, No. 4, pp.543-553, 2014.
- [2]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urvey of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Student Athletes: A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ervice report

- focusing on university student athletes”, 2010.
- [3] Eun-Chang Kwak, Yong-Kyu Kim & Byung-Ha Joo, “A study on student-athletes’ Learning environments in secondary schools and systematic alternatives”, The Korean Journal of Sport Pedagogy, Vol. 18, No. 1, pp.1-16, 2011.
- [4] Government Performance Evaluation Committee, “An assessment of the elite sports program in schools”, 2009.
- [5] Hye-Kyung Park, “Legal and institutional tasks on student athletes in school athletic clubs”, THE Journal of Law of Education, Vol. 27, No. 1, pp.83-112, 2015.
- [6] Yang-Gu Lee, “A Plan for the Improvement of Middle/High School Student Athletes Admission System Linked to Right for Learning Guarantee System”,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2, No. 4, pp.553-562, 2013.
- [7] Seok-Jeong Shon, “Developmental Proceedings, After the New Korean Laws for Operating and Promoting Schools of Physical Education (SPEP Laws)”,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Presentation Material, 2013.
- [8]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Plans to create an advanced athletic department operation system that will foster educated student athletes whose education rights are guaranteed. A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report”, 2010.
- [9] NCAA, “The National Collegiate Athletic Association of Athletic Management Rulebook”, 2013.
- [10] Eun-Chang Kwak & Byung-Ha Joo, “An Analysis of Parents’ Perceptions on Secondary School Student Athletes’ Holding Down Study and Exercise”,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 14, No. 2, pp.421-440, 2014.
- [11] Yang-Gu Lee & Hyung-Il Kwon, “Exploration of Outcomes for the System Development of Learning Right Policy”,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Education, Vol. 52, No. 3, pp.527-538, 2013.
- [12] Yong-Sik Lee, “Camp Training Realities of School Athletic Club and Improvement Plan”,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Vol. 10, No. 2, pp.93-107, 2012.
- [13] IL-Shin Kim, Seo-Yeon Kim, “Converged Relationship between Oral Health Education and Dental Health Behavior of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IT Convergence Society for SMB, Vol. 6, No. 4, pp 107-114.
- [14] Yong-Sik Lee, Jin-Kyung Park, Young-Lin Chung, Won-Kyung Kim, Jee-Hun Jang & Man-Sik Choi, “Cause Analysis and Improvement Investigation on Non-compliance of Student-athletes’ Security Policy on the Rights for Learning”,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port Policy, Vol. 14, No. 2, pp.13-36, 2016.
- [15] Jong-Yun LEE, “r-Learning and Educational Information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 No. 1, pp. 1-15, 2010.
- [16] Suk-Yong Jung, “Feedback Load Control Mechanism for Real-Time Web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1, No. 1, pp. 17-21, 2010.

이 양 구(Lee, Yang Gu)



- 2009년 2월 :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과(체육학박사)
- 2012년 3월 ~ 2015년 2월 : 중앙대학교체육연구소 연구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서원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
- 관심분야 : 학교체육, 체육측정평가
- E-Mail : yglee@seowon.ac.kr

홍 희 정(Hong, Hee Jung)



- 2011년 8월 : 인하대학교 체육학 박사
- 2013년 7월 ~ 2014년 6월 : 중앙대학교체육연구소 전임연구원
- 2014년 7월 ~ 현재 : 서원대학교 교육연구소 학술연구교수
- 관심분야 : 스포츠교육학, 무용교육
- E-Mail : hjhj1019@empas.com